

논술 출제 개요

2011년도 경희대 인문/예체능계 모의 논술 문제는 <논제 I>과 <논제 II> 그리고 <논제 III>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총 3문제가 출제되었다. 모두 고등학교 학력수준에 맞추어 논리적·분석적 추론 및 수리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논제 I>과 <논제 II>은 다양한 사례를 서술하는 지문들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고,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또한 고교학력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한 영문지문을 1개 제시함으로써 영어독해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제 III>는 평이한 지문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과 더불어 고등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마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리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의 의미를 지문과 연결해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1. <논제 I >

<논제 I>의 주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복지사례를 분류하는 것이다. <논제 I>에서 활용된 제시문은 영문 1개, 국문 4개로서 총 5개이다. 제시문 [마]는 사회복지에 보는 두 가지 관점인 약자보호와 국민의 삶의 질과 자아의 발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아동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사례를 담고 있다. 제시문 [나]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에 대한 사례를 담고 있다. 제시문 [다]는 저소득계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소액대출은행(microcredit bank)의 사례를 담고 있다. 제시문 [라]는 모든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티켓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2. <논제 II >

<논제 II>는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논제II>에서 활용된 제시문은 총 3개다. 세 지문은 각각 인간의 본성과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제시문 [바]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오는 이익에 따라 결정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급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활동은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에 의해서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문 [가]는 국가가 사회복지를 공급하고, 제시문 [다]는 사회단체가 공급을 하게 된다.

<논제 III>은 수리적 계산 능력과 <지문>의 내용과 연결해 계산 결과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X는 플랜 A를 Y는 플랜 B를 의미하며, $150x + 180y$ 는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플랜 A와 플랜 B에 대해 $3x+3y \leq 180$, $1x+2y \leq 100$ 이라는 예산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플랜 A만 지원할 경우에 60을 플랜 B만 지원할 경우에는 50이 가능하다. 또한 플랜 A와 플랜 B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점은 찾을 경우 $(3x+3y=180)-(3x+6y=300)$ 이므로 y 는 40이 된다. y 를 대입할 경우 $3x+120=180$ 이므로 $x=20$ 이

다. 가능한 최대 교육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점은 (60, 0), (0, 50), 그리고 (20, 40)이며, 이점을 각각 $150x+180y$ 에 대입하여 보면, (60, 0)과 (0, 50)일 때 교육효과는 각각 9,000이며, $x=20, y=40$ 일 때 10,200으로 교육효과가 가장 높다.

그러므로 제시문 [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특정한 복지혜택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기 보다는 예산내에서 다양한 대상과 지원방법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이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출처]

제시문 [가]: 디지털타임즈 2011.1.11

제시문 [나]: <http://worldcuppark.seoul.co.kr>

제시문 [다]: <http://www.grameen-info.org/>

제시문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도자료, 2006.8.9, www.arko.or.kr

제시문 [마]: 한인영 외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제시문 [바]: 최윤재, 한비자가 나라를 살린다: 경제학자가 제안하는 통쾌한 한국개혁론

201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사회계열)

논제 I

제시문 [마]는 사회복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를 가정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는 구호적 성격의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과 자아의 발전을 돕는 보편적 성격의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제시문 [가]-[라]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와 [다]는 전자의 관점에서 [나]와 [라]는 후자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례다.

먼저 제시문 [가]와 [다]는 모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적 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설명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에게만 지급된다. [다] 역시 농촌지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제시문 [나]와 [라]가 기술하는 복지사례는 특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질과 자아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들이다. [나]에서 월드컵공원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생태적으로 복원한 공원으로서 모든 서울시민이 즐길 수 있는 복지시설이다. 또한 [라]의 사랑의티켓제도 역시 국민들이 저렴하게 연극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전체의 문화적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201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사회계열)

논제 Ⅱ

제시문 [바]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며 그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시문 [가]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빈곤한 사람들에게 자녀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개인들은 빈곤층에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는 국가가 양육비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제시문 [다]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빈곤층의 사람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나 자본의 부재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은행은 빈곤층에게 자본을 빌려주어 이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 대여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 [다]에서는 비영리단체인 소액대출은행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다. 즉 소액대출은행이 자본을 대여해 주어 빈곤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1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사회계열)

문제 III

X는 플랜 A를 Y는 플랜 B를 의미하며, $150x + 180y$ 는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플랜 A와 플랜 B에 대해 $3x+3y \leq 180$, $x+2y \leq 100$ 이라는 예산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플랜 A만 지원할 경우에 60을 플랜 B만 지원할 경우에는 50이 가능하다. 또한 플랜 A와 플랜 B가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점은 찾을 경우

$(3x+3y=180)-(3x+6y=300)$ 이므로 y 는 40이 된다. y 를 대입할 경우 $3x+120=180$ 이므로 $x=20$ 이다. 가능한 최대 교육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점은 $(60, 0)$, $(0, 50)$, 그리고 $(20, 40)$ 이며, 이점을 각각 $150x+180y$ 에 대입하여 보면, $(60, 0)$ 과 $(0, 50)$ 일 때 교육효과는 각각 9,000이며, $x=20$, $y=40$ 일 때 10,200으로 교육효과가 가장 높다.

그러므로 제시문 [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특정한 복지혜택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기 보다는 예산내에서 다양한 대상과 지원방법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이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답안 설명을 위한 표입니다.

